

# 러·일 戰爭에 대한 研究

## — 日本의 對韓侵略政策을 中心으로 —

鄭 鎮 午\*

### 目 次

- I. 序 論
- II. 國內情勢
- III. 國際情勢
- IV. 日本의 對韓政策
- V. 러·일戰爭
- VI. 結 論

## I. 序 論

러일전쟁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이전부터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서 꾸준히 음모를 계속해왔는데 이 전쟁기간 중에도 그러한 계략을 추진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하게 된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계략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일본이 강대국과 공모하고 감행하여 승리한 것으로서 국제정치에 있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국력이 사분오열되어서 이를 방어하지 못했다. 결국 이 전쟁은 한국의 현실을 배태한 실마리가 된 셈이므로 그 원인을 특히 일본의 대한 음모·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國內情勢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요동반도 반환문제를 둘러싼 러시아·독일·프랑

\* 법정대학 행정학과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스의 3국간섭이 성공한 뒤에 조선의 왕실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보호국화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배일 친러 경향의 민비의 후원으로 성장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였다. 따라서 수세에 몰린 박영효일파는 민비살해음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세력기반이 약화된 일본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혼련대의 쿠데타를 가장하여 많은 일본 낭인을 동원하여 궁정을 기습하여 반일세력의 수뇌인 민비를 살해하고(을미사변) 국왕을 감금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감금상태의 국왕을 빼내어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했던 춘생문사건등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일본은 김홍집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단발령 등을 실시하였다. 을미사변, 춘생문사건 등으로 인심이 크게 동요된 가운데 감행된 단발령은 일반민중과 특히 보수적인 유생층을 크게 자극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처에서 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진압을 위해 친위대가 지방으로 빠지고 궁궐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국왕일행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1896년 2월에 일어났다. 이 아관파천은 연금상태에 있었던 고종을 미국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 했던 춘생문사건에 연루되어 해외로 망명했던 이범진이 비밀리에 귀국하여 미국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이완용, 이윤용과 함께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미국대리공사 알렌의 도움을 받아 단행한 것이었다.

또 이는 고종의 희망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고종은 외세의 간섭과 감오, 을미개혁으로 왕권이 침해되고 왕실재정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온데다 을미사변을 겪은 후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큼 불안하여 취침마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sup>1)</sup>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시아·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졌던 소위 정동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 내각이 성립되어 개혁은 중단되고 러시아·미국·프랑스·독일·영국·일본 등에 의한 이권쟁탈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왕실의 존칭을 고칠 때 왕을 아직 대군주폐하, 왕후를 황후폐하로 부르게 하여 아직 “칭제”하지는 않았으나 폐하라는 호칭을 썼고 을미사변 직후 김홍집 내각에서 국왕에게 “칭제”할 것을 건의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관료들은 물론 유생들까지도 “칭제”건의 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국왕이 1897년 10월 12일 원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칭제 건원운동을 추진한 주체는 고종 및 전·현직관료, 개신유학적 유생들로서 이들은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적 조건을 포착하여 만국공법을 내세워 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부정하고 자주권의 확립을 선언하였다.<sup>2)</sup>

그러나 대한제국 성립의 외적 요인인 열강의 세력 균형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었다. 특정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방지하려면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의존하기보다

1) 「한국사 11」, 한길사, 1994. p. 148.

2) Ibid., p. 153.

철저한 내정개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자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긴급한 것이다.

그러나 광무개혁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고종과 그 측근의 관료였다. 이들은 군주권과 국권을 동일시하는 봉건적 국권의식을 바탕으로 민권의 신장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세력을 탄압하여 군주권의 절대화를 정치·경제·군사 모든 제도에서 확립시킨 후 황제의 의사가 직접 실현될 수 있는 궁내부 기구를 확대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각종 근대화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재정의 침식과 민중수탈 강화를 통해 끌어들이는 각종 재원은 개혁자금의 확보 즉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방대한 집적에 비하여 자본 투자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개혁사업은 지지부진하였다. 부족한 자금의 조달을 외채에 의존하는 방식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획득을 통한 자본 침투를 초래하였다. 또 대내외적 위기 의식에서 증강된 군대도 민중항쟁을 진압하는데 사용되어 체제 유지를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되었을 뿐 외세의 정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결국 광무개혁은 봉건체제를 유지한 채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자주적 개혁 의지와는 달리 외압을 가중시켰으며 마침내 러·일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sup>3)</sup>

### Ⅲ. 國際情勢

청일전쟁이후 열강의 중국과 만주에 대한 침략은 지칠대로 지친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양상으로 가속화 되어갔다.<sup>4)</sup> 특히 그 대립의 중심은 이미 중국에 대해 보다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영국과 급속한 남진정책을 강행하는 러시아와의 대립상이었다.<sup>5)</sup> 러시아는 1896년 5월 22일 영·일을 가상 적국으로 하는 청·러 밀약<sup>6)</sup>을 체결하여 동청 철도부설권을 획득하고 1898년에는 일본이 3국간섭에 굴복하여 포기한 요동 반도의 여순·대련 지구의 조차권과 동청 철도를 대련까지 연장하는 남만주 지선의 부설권을 탈취하여 만주침략을 급속히 진행시키는 것이었다. 러시아로서는 1891년부터 추진해 오던 시베리아 철도 건설의 본격적 완성을 기하게 됨으로써 동북단의 해삼위와 만주 중원을 뚫고 여순, 대련에 이르는 중추동맥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신흥제국 독일은 1893년 3월 산둥반도의 교주만 조차조약을 성립시키고 동년 11월에는 프랑스가 광주만을 조차하는 판국이였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대한 주동적 견제세력인 영국은 1898년 6월 구룡반도를 그리고 동년 7월 1일에는 청일전쟁 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위해위의 조차권을 획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1899년부터 남아프리카에 대한 침략 전쟁인 남아전쟁을 시작하여 예상외로 장

3) Ibid., p. 191.

4) 류수현, 「한국근대정치사」, 정음문화사, 1984, p. 124.

5) Ibid., p. 125.

6) 牧野輝智, 「明治·大正史」②(外交編)(朝日新聞社, 東京, 昭和 5年), p. 120. 및 A Whitney Grisworld,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Yale University, 1964) pp. 714-715.

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미국은 1897년 하와이를 병합하고 1899년에는 사모아 군도를 영유하게 되었으며 1898년의 미서전쟁의 결과로 쿠바에 대한 경영에 착수하게 되고 푸에르토리코, 구암, 필리핀을 영유하게 되어 이 방면에 대한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서 전쟁과 그 결과는 프론티어의 소멸과 함께 추진된 미국의 대외 적극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향후 미국의 대외 진출은 태평양 방면을 지향하는 것이며 위의 태평양 상의 제 요지를 근거로 하여 극동지역으로 그 세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제 막 영유하게 된 원거리의 이들 제 지역들을 경영하는데 전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했으며 이권 획득에 있어서도 1898년 오향철도부설권을 취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1899년 9월 미 국무장관 존·헤이의 「문호개방·기회균등의 요구선언(The Open Door Note Of 1899)」<sup>7)</sup>은 중국 진출에 뒤진 미국의 입장을 만회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분할 경쟁의 치열한 이면상을 단적으로 폭로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선언은 중국경쟁에 뒤늦은 미국의 중국에서의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이 주목적인 것같은 것으로서 “중국에 있어서 타국의 조차지, 세력범위 및 이로부터 생기는 특수이익은 승인하나 그 지역내에 있어서 타국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세, 항만, 철도 운임 등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남미 대륙에서 구주세력을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 온 먼로선언(1823)의 아시아판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sup>8)</sup>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열강은 처음에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본만이 즉각 앞장서서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sup>9)</sup>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선언을 적극 지지하게 된 이유로서는 첫째, 지리적 호조건을 감안하여 현재 중국진출에 있어서 뒤진 열세를 만회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일본으로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둘째로, 이 선언은 만주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셋째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미국의 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해 둘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sup>10)</sup>

#### IV. 日本의 對韓政策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일세력은 근절되고 친러세력이 정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

7) Ibid., pp. 36-51.

George Kennan, *American Diplomacy* (Mentor Book, Published by the New American Library, 1963) pp. 30-33.

8)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85. pp. 236-239.

9) 류수현, op. cit., p. 127.

10) A Whitney Grisworld, op. cit., p. 56 & p. 77.

략적 간섭과 탐욕이 점차 노골화하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애국적 침략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지성 청년들의 반식민주의 반침략주의 운동은 침략세력으로서의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공통의 위협적 존재가 되었으며 따라서 러·일 양 침략세력은 이 독립협회의 타파를 위해 매국적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온갖 모략·중상을 하는 동시에 그들 침략 세력끼리의 협상·타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또한 되었던 것이다.<sup>11)</sup>

삼국간섭이래 일본으로서는 대러정책에는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아관파천 이후는 러시아와의 일련의 협상을 모색하여 왔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 만주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중요성밖에 인정하지 않았고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어 자국의 세력이 완전히 강성해질 때까지는 조선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고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한 일본의 타협책과 결합하여 러·일간의 비밀협상으로 나타났다.<sup>12)</sup>

그것이 1896년 5월 14일의 제 1차 러·일 협상이라 할 수 있는 「웨벨(Carl Waeber)小村각서」이었다.

이 각서에서 양국은 민비 살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승인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한국정부에 간섭하여 행한 조각을 정당한 것이라고 일본이 승인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우월적 위신을 확보한 반면 일본으로서는 지극히 굴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렸던 일본으로서는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보기 위한 불가피한 타결책이었다.<sup>13)</sup>

그러나 일본 전권 山縣有朋과 러시아 외상 Lovanov와의 제 2차 러·일 비밀협약(1896. 5. 28. 과 6. 9)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잃었던 지보를 크게 만회하였다.<sup>14)</sup> 이 2차 비밀협약에서는 한국의 외채모집은 양국의 합의로써 하고(제 1조) 일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신선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제 3조) 한국에 출병할 경우에는 양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것(비밀조관 제 1조)을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균형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양국이 파병하게 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 군대 사이에 비점령지인 공지를 두어 두 나라 군대의 용병지역을 확정할 것을 비밀히 약정했다(1896). 일본은 처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북은 러시아가, 그 이남은 일본이 각각 세력범위 속에 넣을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대를 더 파견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경계선을 결정하면 된다는 이유로 일본의 제의를 거부하고 두 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을 확정할 것만 약속했다.<sup>15)</sup> 결국 조선은 러·일 양국의 공동 보호령이 되어버린 셈이었다.<sup>16)</sup>

11) 류수현, op. cit., p. 117.

12) 최문형,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 일조각, 1979. pp. 3-16.

13) 「일본외교문서」, 제29권, 문서번호 458(小村公使 日露覺書申報ノ件) 참조.

14) 同文書, 文書番號 478(露國駐在西公使 山縣大使 露國トノ 議政書成立シタル旨報告ノ件) 參照.

15) 강만길, 「한국군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5. pp. 205-6.

16) 「한국사」, op. cit., p. 149.

이 비밀협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당시 한국에서 反러운동이 점차 고조되어 갔던 상황에서 일본과의 대립을 격화함이 득책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더욱 일본에게 이 정도의 양보를 한들 러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러시아가 한편에서는 일본과 위의 비밀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조선정부의 대표(閔泳煥)와 밀약을 체결하여 러 정부로부터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고용할 것과 조선국왕이 천궁하는 경우에 궁궐의 호위는 러시아의 병력이 담당한다는 것을 상호 확약하여 사실상 한국에 대한 러의 재정적·군사적 측면에서의 배타적 지배권이 확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7)</sup>

그러나 제 2차 협상에서도 만족할만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일본은 다시 러시아와 제 3차 협상을 벌였다.

1898년 4월 25일 일본외상 西德次郎과 駐日러시아 公使 Rosen간에 이루어진 제 3차 러·일 협약인 『西·로오젠협정』에서는 1)러·일 양국은 한국의 내정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을 것 2)조선 정부가 러 또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원조를 요구할 경우 러·일 양국은 사전에 상호 협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 3)러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상업상 및 공업상의 기업이 크게 발전된 사실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의 신민들이 다수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의 상업상, 공업상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sup>18)</sup> 러시아가 이 협약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양보였다. 러시아가 이러한 양보를 한 까닭은 러시아가 당시 목표로 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건설과 병행해서 만주지역의 지배·경영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더욱 만주지역에 대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19)</sup>

둘째로는 이 3차 협약이 체결되기 불과 한 달 전인 1898년 3월 27일 세계의 이목을 기만하고 삼국간섭으로 청국에 환부시켰던 요충지 旅順과 大連의 조차권을 청국으로부터 비밀리에 획득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무마코자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지보가 없고서는 만주지역까지의 진출은 염두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당면의 한국 문제를 우선 유리하게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째로 러시아는 한국내에서의 당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반러시아 운동이 전개되었고,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탐욕적인 독주에 대한 열강들의 은연한 저항도 있어서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제휴가 절실히 요망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의 분할 경쟁에서 뒤떨어진 일본은 1900년 2월에 발생한

17) 李瑄根, 『韓國史(現代編)』(震檀學會, 乙酉文化史, 1965) pp. 758-759.

18) 『日本外交文書』第31卷, 第1冊, 文書番號 164(日露協定書調印ノ了シタル旨通知 1件, 附記: 韓國ニ關スル日露議政書)參照.

19) 류수현, p. 122.

20) 이선근, op. cit., pp. 860-861., p. 781.

중국의 의화단 사건(북청사변)의 수습에서 “구미 열강의 극동 침략을 위한 극동의 헌병 노릇을”<sup>21)</sup>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구미 열강과 대등한 지위에서 국제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의화단 사건을 진압하는데 있어 영국의 출병 요구를 받은 일본은 이에 적극 개입하여 「북청사변에 관한 의정서」를 성립시킴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재기불능의 식민지적 지위로 전락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sup>22)</sup>

그리고 이 북청사변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러·일간의 세력 균형은 깨진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만주 지배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반향되었다는 것, 둘째로 일본이 삼국간섭 이후 가속적으로 추진한 군비 확장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을 겨냥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신감, 셋째로 북청사변을 계기로 한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제적 여건의 변화 등이 그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sup>23)</sup>

러시아가 당면목표를 만주지배에 두고 한반도는 부수적 문제로 인식하는 한, 한반도를 세력 균형지대 또는 국제적 중립지대로 함이 바람직하였으나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지배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집념적 목적인 이상 한반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이나 중립화 정책에 만족할 수 없고 일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 만주는 세력균형지대 또는 중립지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01년 1월 7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을 열강의 공동 보장하에 중립화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1월 17일 주일 러시아공사 로오젠과 회담한 加藤의상은 러시아의 만주철병이 실현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한국 중립화 문제는 그때 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 좋다고 거절하였다.<sup>24)</sup>

그리고 加藤은 자기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중립 보장의 범위를 만주까지 확대시키든지, 러·일 간에 세력범위를 분할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加藤이 말한 러·일간의 세력범위의 분할이란 당시 주청 일본 공사 小村壽太郎이 同年 1月 11日 加藤의상에게 구신한 의견서에서 “露國의 該提議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에서, 노는 만주에서 각기 세력범위를 분할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고 한 小村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sup>25)</sup>

이 당시 일본 조야에서는 이러한 “한만교환론”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었다. 이 당시 일본은 첫째 대러시아 협상을 계속 추진하여 한·만교환론을 실현토록 노력하고 둘째로는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해 한·만교환을 실현하든지 불연이면 영국의 보장하에 전쟁

21) 류수현, op. cit., p. 131.

22) 牧野輝智, 「明治·大正史」②(外交編)(朝日新聞社, 東京, 昭和 5年) pp. 221-226.

C. L. Becker, *A History of Modern Europe, Course III, Imperialism and World Conflicts* (Silber Burdett Co., Washington D. C., 1945). pp. 38-41.

오기평, op. cit., p. 246.

김용구, 「세계외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p. 419-423.

23) 류수현, op. cit., p. 137.

24) 吉屋哲夫, 日露戰爭(中央公論社, 東京, 昭和 41年), pp. 33-34.

25) Ibid., pp. 34-35.

에 호소하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대러협상론자인 伊藤博文이 대러시아 협상을 시도하고 주영 일본공사 林董이 영·일 동맹 교섭을 병행하기로 하였다.<sup>26)</sup>

그리하여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제 1차 영·일 동맹의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이 동맹에서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국에 있어서, 일본은 한·청 양국에 있어서 각기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 1조) 고 되어 있고 제 3국이 참전하는 경우에는 협동작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제 3조).

영·일동맹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였고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우월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으나 교섭의 과정에서 일본은 영국이 그들과 이해관계가 적은 한국 문제로 말미암아 러·일간에 전쟁이 유발하여 그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진의를 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맹 자체가 러·일전쟁을 일직선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으로서는 영·일동맹과 같은 유리한 배후의 조건을 이용하여 보다 강경히 대러교섭을 전개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가운데 12월 7일의 일본정부의 원로회의에서는 대러시아협상론과 영·일동맹론을 비교 검토한 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러전쟁을 목표로 한 영·일 동맹을 택함이 현명하다는 대러강경론자 小村壽太郎 外相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12월 23일 伊藤은 러시아의 Lamsdorff외상에게 교섭의 단념을 통고하였다.<sup>27)</sup>

## V. 러·일戰爭

마침내 일본은 12월 16일 러시아와의 전쟁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sup>28)</sup> 이 같은 결정에는 이미 동맹관계에 있는 영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해군함대를 보내 한반도의 인천항과 요동반도의 여순항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군함들을 불시에 기습, 격파시켰다. 이어 10일에는 정식으로 선전을 포고함으로써 러·일간에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1년 6개월에 걸친 러·일전쟁 결과 실질적으로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한국이었다. 전쟁과 함께 한반도의 북쪽 지방은 전쟁터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에 앞서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이 명확히 예견되자 한국정부는 1월 21일 국내외에 엄정

26) Ibid., pp. 42-43.

27) Ibid., pp. 47-48.

28) 「岩波講座 日本歴史」 17, 東京: 岩波書店, 1976, p. 24.

중립을 선포한 바 있었으나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은 전쟁개시와 동시에 대러 전선에 보낼 병력뿐 아니라 한국 임시파견대라는 한국점령을 위한 부대도 따로 편성해 곳곳에 상륙시켜 이들로 하여금 먼저 서울을 점령하게 하고 점차 전국 각 요지에도 주둔시켜 나갔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을 기화로 한반도 점령이라는 오랫동안의 침략 목표를 먼저 달성한 셈이었다. 이 같은 무력 점령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치적 지배기반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협박, 매수한 끝에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동양평화와 한국의 독립보전 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여기서 일본이 노린 것은 제 1조의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의 권한 및 제 4조의 제반 군사적 권리를 얻는 일이었다. 한일의정서의 체결은 이미 일본이 러·일 전쟁이전에도 비밀리에 요구한 바 있었다.<sup>29)</sup> 그러나 한국 정부의 중립선언으로 일단 무산되었다가 이제 군사적 점령상황에서 비로소 뜻을 이룬 것이었다. 이 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침략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한 직후인 1903년 12월 30일 전쟁 개시 후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방침도 미리 확립했으며 일본이 구상하던 한국 침략 정책의 기본 성격은 군사적 점령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sup>30)</sup> 다만 한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군사적 점령과 동시에 의정서의 체결을 서둘렀던 것은 이 같은 침략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였다.

의정서 체결에 이어 일본은 더 많은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1904년 3월에는 한국임시파견대를 한국 주차군으로 개칭해 영구 주둔 태세를 갖추었다.

한국에 대한 군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다 체계적 침략지침인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 및 對韓施設細目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5월 30일 일본정부의 내각회의에서 통과된 대한방침에는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하여 정사상 및 군사상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에 있어서는 더욱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침략정책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한일 의정서로 보호국의 틀을 세운 일본은 이후 한국에서 군사·외교·재정 등의 각종 권리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동시에 경제 각 부분의 실질적 이권을 확대함으로써 보호국 체제의 내실을 갖추겠다는 구실이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대한 시설 강령에서는 ① 군사 점령의 영구적 강화 ② 외교권의 장악 ③ 재정권의 탈취 ④ 교통기관의 장악 ⑤ 통신기관의 장악 ⑥ 농업, 임업, 광업, 어업의 각 경제 분야 지배라는 6개항의 분야별로 나누어 침략목표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은 먼저 한국 정부에 대해 그들이 추천하는 외교 고문 및 재정고문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1904년 8월 22일 한일의정서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 조항에 근거해 한일협약서가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 고문과 제 3국인 외교 고문을

29) 최영희, "한일의정서에 관하여", 『사학연구』20, 한국사학회, 1968.

30) 『일본 외교문서』, pp. 36-1, pp. 41-45.

고용해야만 하였다.<sup>31)</sup>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역에 그치지 않았다. 고용계약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에 관한 업무일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고문의 채용은 재정과 외교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 다른 부서에 도 자진 초빙의 형식으로 고문을 두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군부, 내부, 궁내부, 학부에도 차례로 일본인 고문이 채용되었으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많은 일본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른바 일본의 고문정치가 한국 내정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점령과 함께 일방적으로 군령을 발표해 한국민에게 적용해왔는데 7월에 들어서는 먼저 서울에서부터 정식으로 군사경찰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민간인들도 그들 주차군 사령관의 군령에 따르도록 한 군사경찰제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자에게는 사형을 비롯한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sup>32)</sup> 전쟁기간 중 한국민에 대한 이 같은 통제 장치의 확대·강화는 그들의 수탈행위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긴급히 필요한 군용 철도건설과 군사시설 구축, 군수품 수송 및 물자 조달 등에 드는 비용을 수 많은 한국인의 토지와 인력 그리고 군수 물자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험 값으로 약탈해 충당하였다.<sup>33)</sup>

러일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전체 전쟁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받은 것 외에 한국 국민에 대한 막대한 수탈로 전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개전 이듬 해인 1905년 1월에는 러시아의 군사요새지인 여순항을 점령하였으며, 3월에는 봉천성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둠으로써 점차 승리의 전망이 분명해졌다.

전황이 우세하게 진행되자 일본은 4월 8일 내각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보호권 확립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그들이 한국의 대외관계를 대행함과 아울러 한국 정부의 내정을 감독하고 在韓日本人의 보호를 맡을 주차관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추진해오고 있던 보호국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의 내정감독, 곧 보호 통치를 주관할 주차관의 파견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점이었다.<sup>34)</sup>

5월의 대한해협전투에서 러시아 해군 함대를 케멸시킨 일본은 드디어 미국에 종전을 위한 협상의 주선을 의뢰하였다. 한계에 다다른 일본 국내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리한 상황에서 일단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전제로 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노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태프트-桂 비밀협약을 1905년 7월 29일에 맺었다. 그리고 영국과는 "일본국은 한국에 있

31) 「구한국 관보」 1904년 9월 9일.

32)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東京: 巖南堂書店, 1967. pp. 181-183.

33) 정창렬, "러일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1986. pp. 230-235.

34) 「일본외교문서」 38-1. pp. 519-520.

어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가지며 영국은 일본국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 대하여 취하는 것을 승인" 하는 제 2차 영일동맹을 8월 12일에 체결한 바 있었다.<sup>35)</sup> 그리하여 1905년 8월 9일부터는 시종일관 일본을 지지해 온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조정으로 포츠머스에서 러일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되어 한달여의 논란 끝에 마침내 9월 5일 강화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위에서 밝힌 제 2차 영일동맹의 조항을 그대로 넣어 미국이 지지하고 러시아가 이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일본은 한국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상의 특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계획은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1905년 10월 27일에 곧 보호조약안을 확정짓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의 확립을 통고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군사력을 사용하여 보호조약 체결을 강행할 것을 확실히 하였다.<sup>36)</sup>

## VI. 結 論

한국은 국내정세를 볼 때 봉건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부패와 국론분열, 그리고 외세의 강압 등이 원인이 되어 나라를 잃게 되었다.

국제정세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러, 일, 미, 영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대내외적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망국의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이라 한국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용의 주도하게 수립·시행하여 특히 국제정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한국을 식민지화하게 되었다.

약소국가는 특히 강대국의 정세를 민감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5) 강만길, op. cit., pp. 207-209.

36) 강만길, op. cit., p. 209.

Summary

A Study on the Russo-Japanese War  
—Around Japan's Policy of Aggression against Korean Peninsula—

*Jung Jin-O*

There have been two aspects of why Korea had turned its sovereignty over Japan. One finds its reason from domestic circumstance, i. e., failure of modernization. It means Korea didn't break from feudalistic idea that resulted in underdeveloped nation.

The other is the explanation from standpoint of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was reflecting the battleground for imperial expansionism.

Without knowing what is going on outside the country, consequently without showing any effort to respond, Korea became a victim to the turmoil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Japan, since Meiji Restoration of 1868, had built up its national power and took advantage of expansionism to advance to the continental.

Japan dared war adventures with China and Russia and won in both wars that paved the way of colonization over Korea.

In sum, the late 19C history around us illustrates what and how we, as a small country, have to do with regard to any new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